

전북자치도, 제조혁신 1번지로 도약 박차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개최... 우수사례·비전 공유·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공로자 7명 시상 등

“생각지도 않던 공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여름날 선물처럼 나타난 전북형 멘토님들이 6주간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설계단계부터 공정 간의 배치까지 도와주며 멋진 생산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읍시 소성면에서 생화차 등 액상차를 만드는 동지생화탕의 최화호 대표의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제조공장을 보며 전북형 멘토와 만남이 끝났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가 도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현장 혁신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중간보고회가 16일 W-SKY23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동구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위원장, 운수봉 도의회 운영위원장, 권요안 도의회 농업복지환경부위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광렬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선정기업 등 150여명이 자리했다.

기업대표와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는 우수사례 홍보영상 시청과 지원기업 대표의 소감 발표, 우수공로자 시상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전북자치도의 스마트 공장 사업은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 바로 제조 현장의 리뉴얼이다. 전국을 무대로 수년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한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제조공장 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앞선 동지생화탕의 경우도 약재를 직접 들어 올리고, 손으로 세척하던 과정을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세척기 도입을 통해 하루 생산량 900리터에서 1,600리터로 78% 향상되었고, 제조시간(lead time)은 185분에서 52분으로 72% 감소했다.

이번 사업은 기업대표뿐만 아니라,



16일 우석대학교 W-SKY23에서 열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중간보고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동구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위원장, 운수봉 도의회 운영위원장, 권요안 도의회 농업복지환경부위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광렬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선정기업 등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진안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참식품의 허선정 사원은 “현장에 많은 변화와 개선으로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준 멘토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참식품은 전북형 전담멘토의 현장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라인 재배치와 컨베이어 설치, 슬라이딩 작업대 및 맞춤형 대차제작 지원 등으로 물류간 이동거리를 기존 23m에서 제로화를 달성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임직원의 혁신 마인드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세아씨앤에스의 김현우 직원은 “다인의 작업대를 축소 제작하여 직원들의 불편함과 생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조 혁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올 한해 도내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자 7명(민간인 5명, 공무원 2명)에 대한 김관영 도지사의 도지사 표창장이 전수됐

다.

민간인 부문에는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 포럼의 정철영 회장 △삼성전자(주) 이태희 팀장 △삼성전자(주) 최덕수 위원 △(재)전북테크노파크 김정국 멘토그룹장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은지 주임연구원, 공무원 부문에는 △군산시청 주민지 주무관 △완주군청 조유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국 최초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확산협의체인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의 정철영 회장은 적극적인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발굴과 함께 도입기업이 제조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삼성전자(주)의 이태희 팀장은 전북형 프로젝트 기획 초기부터 참여하여 운영 프로세스 입안, 삼성전자 노하우 전수 등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전자(주)의 최덕수 위원은 전북형 지원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삼성전자 금융기술팀과 협업해 공구마모로 인한 수명개신, 수작업 공정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재)전북테크노파크의 김정국 멘토그룹장은 도입기업의 사전컨설팅 및 현장혁신활동 지원·점검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협업에 판로개척 및 전문기술을 지원했다. 이어, 이은지 주임연구원은 도내 수요기업 발굴 및 기업간 담화, 스마트공장 AS지원을 통한 활용도를 높인 공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첫발을 내디딘 이번 프로젝트를 반환점을 돌았다”며, “도내 제조업체들이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고도화로 발전해 제조업 혁신의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렬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전북형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자생적 스마트공장 확산의 Best Practice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2곳 모집

도, 창업 초기 분야 60억원 출자 예정... 내달 3일까지 공모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사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이며, 선정된 투자사는 전북 지역에 특화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게 된다.

이번 모집은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2개 벤처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며, 창업 초기(주력산업·신산업) 분야에 총 60억원 규모로 출자 약정하고 4년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에 이어 익산은 녹색생명 공학, 정읍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각각 10억원을 출자하며,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힘을 보탠다.

도는 1월 3일까지 출자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1월 17일 우선 협약 대상 투자사를 선정하고, 상반기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

자치도 홈페이지(www.jonbuk.go.kr/) 고시/공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 출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창업지원과(☎063-280-3227, 3273, 3277)로 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들어 펀드 전문관 지정(2022년 11월)과 펀드투자팀 신설(2024년 7월) 등 벤처펀드 조직을 체계화해 왔다. 이를 통해 2023년 6개, 2024년 11개 펀드를 결성해 3,718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2025년에는 9개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들어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전북 기업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즈니스모델 등 경쟁력을 갖춘 전북 벤처 스타트업이 누구나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전북자치도, 44만 건 대상·702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4만 건, 7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1월, 3월, 6월, 9월)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대 50%(12년)까지 세액을 감경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

공자 등은 법령에 따라 50%나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전용 콜센터(1661-6669) 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안전신고 활성화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 공영장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위해요소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 민간단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 활동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 초청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안전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불법 주정차 등 안전 위반 행위와 재난안전 위해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만호 기자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 ‘맞손’

전북자치도, 국민연금·한국중부발전과 협약 체결

간 금융 데이터(카드·증권·신용정보 등) 131종, 총 54억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중부발전이 자체 보유한 발전 데이터 등 3종 1,000만 건을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에 제공하며, 데이터 활용 범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

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 NPS와 협력해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했으며, 2023년 1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핀테크 및 금융혁신 기업지원에 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이후 도의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 첫 협력 사례로, 데이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전북의 선도적 역할을 보여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집적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인근에 지난달 개소한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결합 및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북은 데이터 기반 산업 융합 및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의 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모집	겨울을 보람있게! (1, 2월 동계과정)	환영
스피치기법, 웃음코칭, 리더십, 긴장해소, 시낭송, 면접스피치		
※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가능, 저렴한 등록금, 매주 1회 야간수업		
	▷전담교수 주요경력 전주교육대학 겸임교수역임 전북대학교교양과목 담당교수역임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개발원 초빙교수 “행복한스피치” 등 4권저자 스피치칼럼리스트, KBS아침마당 3회 출연 평생교육사, 시낭송가, 작사가, 옹변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모집기간 : 11월 20일 ~ 12월 31일까지(남, 녀 누구나 가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효자동)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시)		
문의 : 010-7304-5665,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